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님께

얼마 전, 저는 한 젊은 의사의 장례식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서 그녀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그녀의 성경을 잠시 빌려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성경 속에는 이렇게 표시된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 그녀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삶이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것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요 10:10).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그 삶이 그분의 다시 오심까지 계속되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쁨과 확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동기와 힘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의 인상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기름이 없는 자동차를 떠올려 보세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밀고 가든가 ② 연료를 채워 움직이든가

진짜 목적을 이루려면, 결국 기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은, 연료 없는 차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행 1:8).

그렇다면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떻게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누가복음 11장 9~13절에 나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은 받고, 찾는 사람은 찾으며,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

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사람이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빵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혹시 알아채셨나요? 예수님은 이 짧은 말씀 안에서 ‘구하라(ask)’라는 동사를 여러 번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찾으라’와 ‘두드리라’는 말씀이 각각 두 번씩 더해지며, 그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반복을 통해 우리가 단순히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는 태도를 가지길 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구하라’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즉, 한 번만 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단순히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절실하고 본질적인지를 다양한 표현과 반복을 통해 강하게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늘 성령을 필요로 합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반복적인 동사 사용과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한 가지 사실을 새기고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이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은혜입니다. 이 선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왕관과도 같은 선물이며,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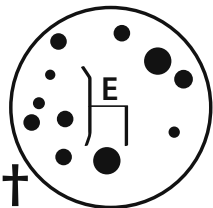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실재를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갈 때, 매일의 삶은 새로운 경험이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세 가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A. 본성에 속한 사람

이는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것이므로 그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고전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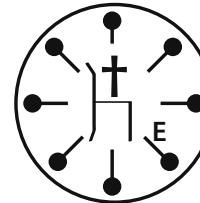


자아가 지배하는 삶의 모습

- E = 불완전한 인간인 ‘나’가 삶의 중심(왕좌)에 앉아 있음.
- † = 그리스도: 삶의 중심 밖에 있음.
- = 삶의 여러 영역이 자아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 그 결과는 혼란과 실망.

B. 영적인 사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며, 성령의 인도와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합니다”(고전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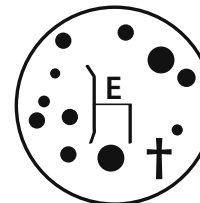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

- † = 그리스도: 삶의 중심(왕좌)에 계심
- E = 자아: 왕좌에서 내려옴
- = 삶의 여러 영역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 그분의 뜻에 따라 조화롭게 자라감

C. 육적인 사람

이 사람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긴 했지만, 자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능력이 아닌,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신령한 자들에게 말하듯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 하였습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주지 않았는데, 이는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여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의 방법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고전 3:1~3)



자아가 주도하는 삶

- E = 자아: 다시 왕좌를 차지함
- † = 그리스도: 나의 삶 안에 있지만, 왕좌에서 밀려나 있음
- = 삶의 여러 영역이 자아에 의해 지배됨 그 결과는 분열과 실망

이제 이 중요한 주제를 네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려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상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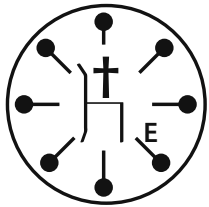
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충만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요10:10).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 15:5).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임이니

다”(갈 5:22).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행 1:8).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그런 삶을 잘 보여줍니다.



- ▶ 그리스도께서 삶의 중심에 계심
- ▶ 성령을 통한 능력 있는 삶
- ▶ 기도가 살아 있음
- ▶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름
- ▶ 하나님을 신뢰함
- ▶ 하나님께 순종함
- ▶ 다른 이들이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인도됨

사랑 | 기쁨 | 평화 | 인내 | 친절 | 신실함 | 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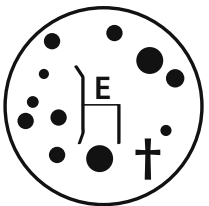
이 열매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 삶에서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는 정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자라가고 있는지, 주님과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 아직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성숙한 사람처럼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장은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충만한 삶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❶ 충만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육적인 사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이 모든 특징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 ▶ 자신이 받은 영적인 축복에 대한 무지
- ▶ 불신앙
- ▶ 불순종
- ▶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부족
- ▶ 불충분한 기도 생활
- ▶ 성경에 대한 관심 부족

불순한 생각 | 시기 | 죄책감 | 불필요한 걱정 | 낙심 | 비판적인 태도 | 절망 | 율법주의적 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 얻으려는 생각)

만약 누군가가 스스로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는 요한일서 2장 3절; 3장 6절; 3장 9절과 에베소서 5장 5절에 따라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❷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고 열매 맺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삶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에서 흘러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A. 요한복음 3장 1~8절에 따르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 자연적인 생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공기, 물, 음식 등 외부의 요소로 유지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 부릅니다(요 3:3).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삶을 맡기고, 적절한 때에 성경적 침례로 그 믿음을 고백할 때(행 2:38; 요 1:12; 14:16~17), 그 생명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 생명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삶의,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B. 성령은 충만한 삶의 근원입니다(요 7:37~39).

C.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요 16:1~15).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D.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행 1:1~9).

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넘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 힘으로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곧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마 5:6; 요 7:37~39).

B.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제힘만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저는 넘어지고 실패했던 제 모습을 압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하셨습니다(엡 5:18). 저는 주님께 제 마음을 엽니다. 지금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눅 11:13). 주님, 이미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기 때문입니다(요일 5:14~15). 오늘 하루,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혹시 당신은 하나님께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당신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말씀입니다(히 11:6; 롬 14:22~23). 우리의 감정은 확신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주십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감정이 아닌 믿음에 기초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신뢰 위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처럼, 믿음(신뢰)과 순종의 결과로 감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이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 믿음(그에 대한 신뢰) → 감정(믿음과 순종의 열매).



기차는 기관차가 앞에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객차가 앞에 있다고 해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앞세워야 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기도할 때, 그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성령의 충만도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사람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요 7:38~39).

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분명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일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이미 우리가 가진 것임을 압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려진 기도는 그 순간 이미 응답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감정은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씀 위에 먼저 서야 합니다.

예시: 누군가가 담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믿음으로 기도한 그 순간 그 사람은 응답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것을 느낍니다(이 예화는 ‘담배와 술의 굴레에서 벗어나다’라는 편지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C.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13절에 나옵니다. 이 편지의 앞부분에서 이 말씀 전체를 함께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13절만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 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문 예시입니다.

이 기도가 지금 당신의 마음과 같나요? 그렇다면 이 기도를 당신의 고백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직접 드려보세요. 입으로 소리 내어 기도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A. 당신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갈 5:22). 당신의 인격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롬 2:2; 고후 3:18).

B. 기도와 말씀 목상이 더 깊어지고 살아있는 시간이 됩니다.

C. 당신은 유혹과 죄를 이길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고전 10:13).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빌 4:13).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엡 6:10).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딤후 1:7).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판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롬 8:1~2).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 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요일 5:18).

D. 당신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 속에서 그분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행 1:8).

영적 호흡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끊임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진심으로 그분을 따르려 애쓰고 있다 해도, 삶의 어떤 태도나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예를 들면 불의한 마음, 용서하지 못한 태도 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죄로 인해, 즉 불순종을 통해 내 삶의 중심 자리에 다시 내가 앉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호흡이란 “더러운 것을 내쉬고, 하나님의 깨끗함을 들이마시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내쉬기 –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세요. 죄의 이름을 분명히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의 시선과 일치시키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감사하세요(요일 1:9; 히 10:1~25). 이 고백에는 회개가 포함됩니다. 곧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향한 결단입니다.

2. 들이마시기 – 삶의 주권을 다시 그리스도께 드리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분이 지금도 당신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이는 누가복음 11장 13절과 요한일서 5장 14~15절에서 약속된 말씀입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이 내용을 나누거나 함께 읽어보세요. 새로운 삶을 시작한 당신에게 하나님의 크신 기쁨과 은혜가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진심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 헬무트 하우바일 그리고 나의 친구 Kurt

▶ 문의: juheeyeon@gmail.com

▶ 추천: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 Letters to Andrew
